

국토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 ◆ 창원NC파크 올해 재개장 물건너가나... 국토부, 정밀안전점검 의견(연합뉴스, 5.8)
 - 정밀안전진단에 최소 6개월 소요, 사실상 올해 안에 재개장 물건너간 셈
- ◆ NC는 울산행...국토부 “다른 구장도 점검”(SBS, 5.8)
 -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

- 국토교통부는 금번 안타까운 사고에 의한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야구장을 찾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3.29(토)에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에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창원시설공단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구(4.3)하였습니다.
 - 이에 공단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4.4~22)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긴급안전점검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설안전확보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최대한 조속히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4.25).
 - * 외관조사 미흡, 재료시험 조사위치 기준 미흡, 상태평가 표본단위 기준수량 미달, 가장 주요한 사용하중이 작용하는 관람석 철골구조 점검 미실시 등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시설물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NC파크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이행 기간(29.3~30.3)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사고 후 경기중단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무관하게 NC구단측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재개장 결정 등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고, 재개장 조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의 필수 이행완료를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 다만, 공단이 시행한 긴급안전점검 결과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탈락이 우려되는 부착물이나 균열이 발견된 구조물 등에 대한 시와 공단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창원시민 등 야구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육안점검이 아닌 장비 등을 활용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위의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과는 무관하게 시·공단·구단 등이 재개장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NC파크의 정밀안전진단시 투입인원을 **개략 산정****하면, **과업기간은 55일(근무일 기준, 4인/일 투입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입인력을 증가시키면 **더 이른 시일내*****에 진단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기반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산정

** 총 투입인원 약 220인(외업 110, 내업 110) ÷ 4인(통상적 투입인원수 가정) = 55일

*** 8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최소 인력 수) 투입시 27.5일, 10인 투입시 22일

□ 10개 프로야구 구단별 사용구장은 총 13개 야구장으로 파악되며, 이 중 5개 시설은 준공후 30년이 경과하였으며, 3개 시설은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붙임 참고)

- 국토교통부는 금번 NC파크의 외벽 부착물 탈락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타 구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을 위해 탈락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프로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가 외벽 부착물의 견고한 부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금번 NC파크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외벽 부착물 점검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공단 및 프로야구 구단측에 알리고, 최대한 조속히 자체점검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야구장의 사용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필요시의 사용제한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①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명령) → ②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③ (공고)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 ④ (보수·보강 조치) ‘중대한 결함’인 경우 관리주체가 조치 의무

□ 국토교통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 시대에 야구장 시설의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문봉섭 (044-201-4598)
		담당자	기술서기관	이영호 (044-201-3585)



붙임

프로야구장 현황

연번	사용구단	시설명	소재지	종별	안전등급	사용승인일
1	키움 히어로즈	고척스카이돔 돔구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종	A등급	20150915
2	KIA 타이거즈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광주광역시 북구	1종	C등급	20140325
3	KIA 타이거즈	군산야구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정동	2종	C등급	19890501
4	삼성 라이온즈	대구삼성 라이온즈파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1종	B등급	20160225
5	삼성 라이온즈	포항야구장	경상북도 포항시	2종	B등급	20130125
6	한화 이글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대전광역시 중구	1종	(미도래*)	20250228
7	한화 이글스	청주야구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종	B등급	19790501
8	롯데 자이언츠	종합운동장 야구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1종	C등급	19851015
9	롯데 자이언츠	문수야구장	울산광역시 남구	2종	B등급	20140404
10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잠실야구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1종	B등급	19820828
11	KT 위즈	야구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종	B등급	19881009
12	SSG	문학야구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종	B등급	20020131
13	NC 다이노스	창원마산야구장	경상남도 창원시	1종	B등급	20190307

※ 1종 시설물(건축물)의 최초 안전등급은 정밀안전점검 시행시 부여되며,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